

병원 일·가정 양립 환경 만들기 주력

7대 실천과제 발표... 모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병원 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섰다.

병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7대 실천과제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실행매뉴얼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토론회'를 지난 12월 21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병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7대 실천과제가 발표됐다.

△모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직장 내 성희롱, 폭언·폭행, 괴롭힘 문화 근절 △간호인력의 안정적 수급방안 마련 △야간·교대근무 특성을 반영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생애주기별 유연근무형태 활용 △근무혁신 10대 제안 안착 △고충처리기구에 일·가정 양립 관련 안건 적극 반영 등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실행매뉴얼도 마련해 병원의 인사담당자 및 현장관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TF 위원들이 7대 실천과제를 선언했다.

은 직장 내 모성보호 이해, 병원 모성보호 준수 목표와 과제, 병원 모성보호 준수절차와 이행과제, 직장 내 모성보호 관련 지원제도와 법률 등 4개 파트로 구성됐다.

고용부 니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7대 실천과제와 실행매뉴얼은 지난 6개월간 7차례 TF 논의를 통해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실행가능성이 높은 결과물"이라면서 "정부는 병원업종의 모성보호 강화 및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대한간호협회 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용부 김종철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주제발

표를 통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활용해 유류간호사 발급·교육·재취업 연계 등 토탈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겠다"면서 "신규간호사 이직방지를 위한 교육, 근로환경 및 불합리한 병원 문화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로 나선 김영애 대한간호협회 복지위원은 "의료기관은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모성보호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숙련된 간호사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가는 의료기관이 모성보호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숙·최수정 기자

일·가정 양립 우수병원

임신·출산 퇴사율 낮고... 육아휴직 후 복귀율 높아

병원 간 모성보호 제도의 활용 정도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이 우수한 병원은 임신·출산 이유로 퇴사한 비율이 낮고,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임기여성근로자 100인 이상 병원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업종 우수·부진사업장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실

태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TF에서 실시했다.

조사결과 상위 10개 우수병원과 하위 10개 부진병원을 비교한 결과 임신·출산 이유로 퇴사한 비율, 육아휴직자 비율, 휴직 후 업무복귀율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우수병원은 임신·출산 이유로 퇴사한 비율이 1.3%에

그쳐 부진병원의 25.6%보다 현격히 낮았다.

우수병원은 출산휴가자 96.1%가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반면 부진병원은 25.6%가 육아휴직을 활용했다.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율은 우수병원이 87.7%로 부진병원의 11.0%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한 우수병원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외에도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 대체인력 지원제도 활용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활용 실적이 우수했다. 반면 부진병원은 제도 활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혜진 기자 hjoo@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신설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 가산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신설됐으며,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12월 20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를 운영하는

병원은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보장돼 주·야간 간호사 모두 근무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질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센티브 기전이 충분하지 않아 실시 기관이 확산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를 확대 고용

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발해 신중하게 책정하고 밝혔다.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적용은 상급병원 설립 현상을 감안해 병원급만 대상으로 하고, 서울지역은 제외된다. 간호등급이 기본등급 이상이고,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산 수가는 야간전담간호사 확보 수준, 즉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간호사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한다. 야간전담간호사 확보 수준 20% 초과 시 3000원, 20% 이하 12.5% 초과 시 2000원, 12.5% 이하 시 1000원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야간전담간호사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수가 개선방안을 개선하는 등 정책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협 중앙간호봉사단 '성북구 감사패' 받아

북정마을에서 간호봉사활동 펼쳐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이 서울시 성북구(구청장·김영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따뜻한 북정마을 만들기"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성북구 북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및 방문간호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 사업에는 서울시와 성북구,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기업 및 단체 등이 참여했다. 북정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지역이다.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은 260여가구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한봉사와 함께 의료봉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



정규숙 기자 sjchoi@

담뱃갑에 흡연 폐해 경고그림 표기 시행

앞으로 모든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10종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지난 12월 23일부터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됐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의 해로움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지난 13년간의 도입 시도 노력 끝에 처음 시행됐다.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WHO에서도 대표적 비가격

정책으로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함께 구강암 환자가 실제로 출연하는 증언형 금연광고를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증언형 금연광고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지속적인 금연정책으로 흡연율이 감소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제도효과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주혜진 기자 hjoo@

파독간호사 강정희 시집 '하얀 날개'



"어린이가 말 배우듯 더듬더듬 독일어 배웠다 / 손은 늘 소독 물에 베어 있었고 / 귀는 언제나 풍뎉 열려 있었고 / 작은 눈은 더 크게 떠야 했다 (...)

중에서)

이역만리 독일에서 일하며 청춘을 보내고 은퇴한 강정희 간호사가 첫 시집 '하얀 날개'를 펴냈다. 시집은 △파독간호사와 문학 △가족 △이방인의 애환, 나의 고향 △자연, 그 아름다운 계절 △신앙 등 5부로 구성됐으며, 84편의 시가 수록됐다.

강정희 간호사 개인의 삶과 추억의 노래를 뛰어 넘어 파독간호사들의 인생 이야기,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묵직한 감동을 준다.

"내 조국 뒤로하고 / 20kg 중량의 짐 꾸러 / 하얀 날개로 훨훨 하늘을 날아 / 이역만리 독일에 왔었네 (...)

중에서) "한 번만 꼭 한 번만 /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어라 / 나 태어날 때 그때처럼" ("어머니의 심판" 중에서)

"이제 난 영원한 이방인으로 작은 평화를 /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누며 아름답게 / 늙어 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독일에 왔다" 중에서)

강정희 간호사는 순천첨양대를 졸업했다. 1969년 독일로 건너가 수술실 간호사로 일했고, 병원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책임자로 활동했다. 2010년 정년퇴직했다. 디아코니아 훈장을 받았다. 현재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랑엔펠트에 살고 있다.

문학광장을 통해 수필, 시, 소설 부문에서 등단했다. 문학광장 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외동포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세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간호사의 열정으로 한번 더 JUMP!

20년 전통의 간호교육연수원이 간호사들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합니다.

간호직공무원 / 보건진료직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 보건복지부공무원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 www.ganhohak.co.kr

간호사를 위한 온라인 전문 교육원 **간호교육연수원**